(1) 일본 자전거보험 가입 급증, 가입 의무화에 코로나 영향 가세

■ 최근 일본의 자전거보험 가입이 급증함. 이는 ①도쿄 등 대도시의 자전거 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('20.4월), ②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한 자전거 출퇴근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

o 대형 손보사들의 4월 자전거보험 가입자는 1월 대비 4~10배 증가함

- 손보재팬의 4월 자전거보험 가입자는 1월 대비 10배 증가했으며, 4월부터 의무화를 시행한 도쿄의 경우 23배 증가함

- 동경해상의 NTT 도코모 계약자 전용 자전거보험 판매도 1월 대비 4배 증가, 미쓰이스미토모도 편의점 멀티기기/인터넷을 통한 가입이 1월 대비 3.5배 증가

■ **(자전거보험 가입 의무화)** 일본에서는 2015년부터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 자전거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왔으며, '20년 4월부터 도쿄 등 3개의 대도시가 추가로 의무화를 시행

o **(배경)** 자전거 사고 자체는 감소추세이나, 보행자와의 사고는 증가하고 있으며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청구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험의 필요성을 자각(※)

o **(현황)** 기존에 자전거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지자체는 총 12개로 금번 도쿄, 나라, 에히메의 도입에 따라 의무화 지역은 총 15개(전체의 32%)로 늘어남

o **(가입률)** 일본 자전거보험 가입률은 57.3%[1]이며, 의무화 시행지역이 非시행지역에 비해 16%p 높게 나타났음 [표1]

> **※ 일본 자전거보험 가입 의무화 경위**
> - 최초로 자전거보험 가입 의무화가 도입된 지역은 효고현(2015.10.)
> - 계기는 초등학생이 자전거 주행 중 보행자와 충돌하여 보행자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고. 법원은 피해자에게 약 10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(2013.7)
> - 이 사고를 계기로 자전거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대되었으며, 사고발생지역 효고현을 시작으로 조례를 통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지자체들이 증가하고 있음

1) au손해보험「자전거보험 가입상황 전국실태조사」(2020.1.11~16, 자전거이용자 약 2만명 대상으로 설문조사)

o **(내용)** 자전거 배상책임보험에 한해 의무화하고 있으며, 자전거 이용자 뿐 아니라 자전거 판매/렌탈상점, 학교 등에도 가입 권장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

- 미가입에 따른 벌금규정은 없으나 미가입시 학교/직장에서 자전거 등하교/출퇴근을 금지할 수 있으며, 사고 발생시 미가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음

[표1] 지역별 가입률 및 의무화 시기

	지자체	가입률	의무화 시기
1위	교토	73.6%	2015.10.
2위	효고	69.9%	2015. 4.
3위	오사카	69.5%	2016. 7.
4위	사가	68.4%	2016. 4.
5위	사이타마	65.9%	2018. 4.
26위	도쿄	50.6%	2020. 4.

*출처: au손보, 『자전거보험 가입상황 전국실태조사』

[표2] 가입 의무화 주요 내용(도쿄)

① 자전거 이용자, 보호자, 자전거렌탈업자에게 자전거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
② 자전거 소매업자에게 자전거 구입자에 대한 보험 가입 유무 확인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 제공 노력을 의무화
③ 사업자에게 자전거 출퇴근자에 대한 보험 가입 유무 확인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 제공 노력을 의무화
④ 학교가 학생들에게 자전거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 제공 노력할 것을 의무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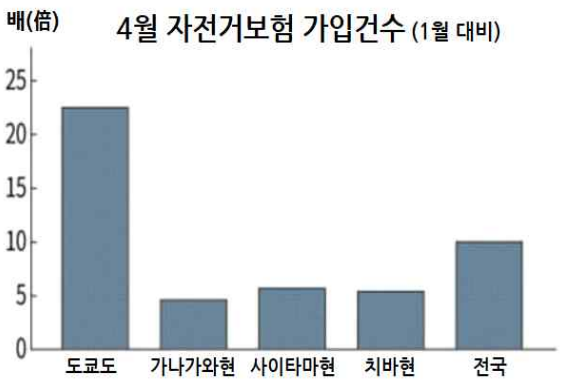
*출처: 도쿄도민 안전추진본부 홈페이지

■ **(코로나 영향)** 코로나 감염 우려로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 출퇴근이 늘어난 점도 보험 가입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되고 있음

- 가입 의무화 시행지역 외에도 전국적으로 가입이 증가*했으며, 나라현의 경우 작년 10월부터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최근 들어 가입이 급증함(5배)

* 손보재팬이 LINE을 통해 판매하는 '자전거 라이프 안심보험' 4월 계약건수, 1월 대비 10배 증가

[그림1] 손보재팬 '자전거 라이프 안심보험' 가입실적



*출처: 니혼게이자이신문(2020.6.8.), 『코로나로 자전거 통근 증가, 보험 가입도 급증』

■ 일본 정부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자전거 출퇴근을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으며, 기업들도 지원금, 주차장 확보 등을 통해 자전거 출퇴근을 지원

o 정부는 자전거 출퇴근을 장려하는 기업 인증제도를 창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,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 환경정비 계획을 발표('20.4월)

o 일부 회사의 경우, 자전거 출퇴근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해주면서 개별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음

o 또 다른 회사는 코로나 대책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면서 자전거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며 자전거 주차장도 추가 확보

* 회사 반경 2키로 이내 50만엔(임대시), 4키로 이내 100만엔(매매시)

o 단, 기업 입장에서는 자전거 출퇴근에 따른 사고 리스크*가 부담으로 작용, 자전거 출퇴근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

* 출퇴근 중 사고 발생시 본인 상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나, 배상책임발생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음

■ 자전거보험 보상내용

o 주요 보상내용은 사망, 치료비, 배상책임, 변호사 비용, 합의 대행서비스, 로드서비스 등이 있으며 보험회사 및 플랜에 따라 상이

o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는 월 100엔부터 500엔대까지 다양

[표3] 주요 자전거보험(2019.8. 기준)

인수 보험사	상품명	월납보험료	개인배상책임	사망/후유장해	입원비
손보재팬닛폰코아	LINE 자전거라이프 안심보험	100엔	1억엔	100만엔	2,000엔
라쿠텐손해보험	사이클 어시스트	250엔	1억엔	250만엔	2,500엔
미쓰이스미토모	Net de보험@사이클	330엔	3억엔	290만엔	4,000엔
au 손해보험	자전거보험 Bycle	340엔	2억엔	500만엔	8,000엔
동경해상일동화재	도코모 사이클보험	460엔	5억엔	550만엔	3,000엔

*출처 : 보험비교사이트 '보험시장' 및 각 사 홈페이지 등

<참고자료>

니혼게이자이신문(2020.5.21.),『자전거보험, 4월 가입 1월의 10배, 의무화 시행한 도쿄 23배』

니혼게이자이신문(2020.6.8.),『코로나로 자전거 통근 증가, 보험 가입도 급증』

산케이비즈신문(2020.6.1.),『자전거 보험 가입 급증, 조례로 의무화, 통근수단으로』

닛세이기초연구소(2020.4.28.),『자전거보험 가입 의무화, 도쿄도 4월부터』